

목포해수청, 선박 안전을 위해 해남 중마도 앞 숨은 암초에 등대불을 밝히다

- 중마도에 등표 설치로 선박 안전항로 확보 및 해양사고 예방 기대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운영자)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화산면 삼마군도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중마도 앞 해상 암초에 항로표지 시설물(등표*)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.

*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등에 설치된 등화를 갖춘 일반적으로 탑 모양의 구조물로 항로표지(航路標識)의 일종이다.

중마도는 삼마군도 가운데에 위치한 섬으로, 주변 해역은 다도해 특유의 복잡한 해저지형으로 인해 수중 암초가 산재해 있어 선박 항해 시 주의가 필요한 해역이다.

특히, 이번 등표가 설치된 암초는 중마도 서측 중앙부 끝단에서 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간출암으로, 간조 시에만 수면 위로 드러나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워 선박 항해에 위험요소로 지적돼 왔다.

이에 목포해수청은 해남군과 중마어촌계 등 지역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암초에 높이 13m, 직경 7m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등표를 설치했다. 중마도등표는 등표 상단의 불빛이 약 12km 거리에서도 식별이 가능하여 주·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 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항행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항로표지시설을 확충하여 선박이 보다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	책임자	소 장	강대웅 (061-542-9660)
		담당자	주무관	손지연 (061-542-9666)

참고

사진대지



중마도등표 건립 전경